

# 갱생한 신부

## The Bride Reborn

오늘 기독교계에서 실제로 잘 알려진 것이 침례이다. 이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들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에 논쟁점이 된다. 재침례 문제는 역시 중요한 요인이고, 또 대부분의 교파들이 이것에 관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물론, **CSDA**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므로, 말씀 안에 포함된 것 이외에는 표준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복음 그 자체에서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 즉 죄를 이기는 교리로부터 있는 그대로 흘러나온 말씀에 의한다. 이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떤 표준들을 말하는지 우리가 검토한다.

우리가 먼저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그 요점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스트롱스 문헌에서 침례의 뜻을 그리스 언어에서 단언한 것이 다음과 같다:

### 1. 담금, 침수.

#### 1a. 재난들이나 고민거리들로 말미암아 아주 압도된 자.

**1b.** 요한의 침례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함에 따른 정결 의식으로써 영적인 개혁을 하려고 결심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지나간 죄들을 용서받고 또 곧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에 적격자가 될 수 있는 유용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유효한 기독교인의 침례며, 사도들이 받은 유일한 침례였으므로 오순절 후에 언젠가 사도들이 재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다.

**1c.** 기독교인의 침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 속에 잠기는 의식이다, 이는 사람이 그의 죄들을 고백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을 선언하고,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친교하고 교회와 친교할 것을 대중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들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모두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한 모든 주된 요점들을 확인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침례 방식에 단어가 함축한 의미는, 어떤 사람이 물 아래로 "잠긴다" 뜻을 내포한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침례에 의미와 방식을 오해하여 할례로 대신하고, 8일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뒤, 그 유아에게 침례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 아기에게 적절하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세례에 의한 그러한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왔다. 그러나, 이 유아 침례가 즉시 문제가 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할례는 오직 남아에게만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남녀 모두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할 때 믿었으며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사도행전 **8:12**) 이 성경 구절에서 두 번째로 유아 침례 교리가 분명히 결점이 있다고 가리킨다: 이는 그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어떤 종류의 표적으로 물 속에 잠기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2:38**) 아기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원죄"라고 어떤 자가 말한다, 그 이유는 아기가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죄된 본성과 함께 태어남이 용인되었다, 그러나 그 죄들이 아기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아기에게 죄가 없다. 이것 역시 성경말씀에서 아주 명백하다: "보라, 모든 영혼들은 내 것이다. 아비의 영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영혼도 내 것이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4**) "아비들은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도 그 아비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16**)

유일하게 성경에서 항상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고 언급까지도 한, 그 방침에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타락하고, 죄된 본성과 이전의 악행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대중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게 광고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이 죽음을 (물 무덤에 장사지냄을) 숙고한 것이다. 그때 그가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야쉬와께서 돌아오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상징이다. 그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전의 모든 것들과 죄들과 어둠이 지나갔다. 그는 여전히 죄로 기울어진 육체 가운데 살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의 일부분이 죽은 것으로 고려하고 (로마서 **6:11**) 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롭게 행한다. 이 새로운 생애가 영원을 표현하는 자질이 되고, 이것이 역시 우리의 육체들을 구원하는 계약금이 된다, 그 결과로 그들이 부활하여 완전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을 고린도전서 **15:5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15-18**절에서 바울이 해설하여 말한 것이다.

사실, 이 유일한 침례에 모범을 야쉬와께서 보여주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이전에 죄들을 짓지 않았고 또 회개할 죄된 성향도 없으셨다, 설령 그렇더라도, 여전히 용이하게 침례 요한에 의하여 물 속에 잠기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침례에 뜻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죄들을 사함 받고 (마가복음 1:4), 우리가 자신에게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싸인이며, (로마서 6:3, 골로새서 2:12) 또한 세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된다. 세번째로 침례에 뜻은 야쉬와의 신부로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 날에 약 삼천 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사도행전 2:41,42,46)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요한의 침례는,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죄를 이기고 승리함을 가르치고, 주는 침례와 아주 똑 같다. 사실상, 오직 **CSDA** 교회가 우리가 바로 **소유해야 할 것**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침례 받은 우리 멤버들이 **참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이것을 오직 한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것이고, 또 새로 개심한 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순전한 마음**"을 계속한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토의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야쉬와의 교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첫째, 요한이 준 침례가 완전히 죄를 이기고 승리함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상에서 왜, 오직 한 교회가 그 빛에 따라서 행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것이다. 요한의 가르침은, 성경 안과 밖에서, 죄된 본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먼저 성경말씀에서 증거한 것으로부터 대처한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 (마가복음 1:4) 요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고 부른다. 이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침례를 말한다. 이는 그들이 다만 이미 행하고 있는 죄들로부터 "떠난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뜻이 있는가? 장래에도 계속 죄를 떠나서 살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 여전히 불의가 그들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날 것인가?

바울이 요한의 침례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녕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 고 하니" (사도행전 19:4). 이 성경 구절에 극히 중대한 다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로 곧 우리가 다시 되돌아 올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은, 요한도 야쉬와의 이름으로 회개의 침례를 준 것을 바울이 단언한 것이다. 그가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7) 여기에서 이 "침례" 단어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주제에 적절하고 "결정적인 단어"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입었을 때" 우리가 그 분 안에 거하고 그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따라서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입는다는 의미는 두 사람이 결혼식에서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과 아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참된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또한 신부로 선언한 것은, 우리가 일생동안에 변함없이 단연 그 분과 함께 생애 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36)

그리스도 시대 직후에, 바리새인 플라비우스 요세피우스라고 이름하는 자가 유대인들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놀랄만한 사건들을 언급한 책들로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였다. 그가 바리새인이므로, 기독교인에 대하여 어떤 우발적인 반응을 제외하고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가 적게 말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제시를 한 것은, 그가 오직 사실을 기초로 하여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실과 아주 상극이 되는 풍습의 출처로부터 찾아낸 유익한 식견을 초기 교회 상태로 자주 말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재에 접하여 찬반 양론을 찾아내어 동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몇몇의 또 다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침례 요한에 대하여 역사가 조세피우스가 기록하기를: "헤롯의 군대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이 침례 요한을 처리한 신의 보복으로 생각된다, 이는 참으로 확실하고 정당한 보복이다. 비록 침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생애를 살도록 훈계하고 지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심을 갖게 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 의를 행하도록 하고, 침례를 받도록 하였을지라도, 헤롯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수락하시는 침례를 사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자에 언급된 침례 요한의 견해가 필요한 것이었다. 침례는 그들이 행한 어떤 죄들이든지 용서받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침례는 그 영혼이 이미 의로 말미암아 철저히 청결케 되고 몸으로 헌신할 것을 내포한 것이다." (Josephus: 'Antiquities,' Book 18 Chapter 5, paragraph 2)

그가 실제로 기독교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지라도 (개심한 자의 침례가 단순히 죄들을 사함 받기 위함만이 아닌 것을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침례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라도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바리새인이 인식한 것은, 요한의 가르침이 일생동안에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삼가 하겠다는 서약이고, 그것으로 영혼의

성향이 정결케 된 것이다. 이는 그 사람이 즉시 완전하게 된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록하기를, "그 영혼이 이미 완전히 정결케 되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결들이면, 지금 개심한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정한 마음"을 소유하였고 또 일생동안 성화된 생애를 하겠다는 (즉, 마음과 성품을 적절하게 준비해야 하는) 임무를 시작할 준비를 갖춘 것이다.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여 결말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주디아에서 살고 있는 3등급, 유대인들 중에서 고대 유대교의 한 분파에 소속된 것을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가복음 1:6절에서, 사실 그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과 그의 옷차림새와 음식물이 확실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역시 로마 아래에서 정치적인 존재들에 바리새인들과 사두새인들과 같지 않은, 고대 유대교 한 분파는 (우리가 결국 얻은 사해 두루마리 - 1947년 사해 서북안 쿰란 등지의 동혈에서 발견된 히브리어의 구약 성서와 그밖의 두루마리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도시 밖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청결함을 위하여 엄격한 표준들을 지켰고 또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순결하고 청결함을 지속하는 의도로 매일같이 그들 자신들이 물 속에 (침례) 잠겼다.

요한이 참으로 그 그룹의 멤버였는지 아니었는지 간에, 침례가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더욱 정결케 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으므로, (누가복음 1:13-15절) 야게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들보다도 더한 통찰력을 소유하였고, 때가 되면, 그가 도시들에 나가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왔음을 가르쳤다. 이것이 성경과 세상 역사상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가! 또한 흥미있고 감동되는 것은, 사두새인들, 바리새인들과 고대 유대교의 한 분파들의 그룹 중에서, 만왕에 왕이시며 만주에 주께서 곧 나타나실 것에 대한 가장 명백한 빛을 존중하는 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정치적인 체계로부터 분리하여 살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야쉬와께서 실제로 공중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요한에 가르침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확립하였는가? 이 기록으로 나의 독자들이 만족하기를 바란다. 물론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기록을 읽어보지 않은 자는, 이전에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아주 감정이 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에 함유된 것을 명백하게 설명한다: 만일 사람이 전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지 않고 침례를 받았으면, 그나 그녀는 실제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며, 더구나 야쉬와의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고 쓰라린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 가르침이 심한 채찍이 될지라도 끝까지 계속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항상 세속적인 교회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 교리 안에 있는 결점들을, 그저 지적해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격려하여 끝내려고 노력한다.

아무튼 지금, 이 기록에서 "기독교도의 본질"을 많이 언급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음이었, 아직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2) 그러나 지금, 때가 되었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참으로, 끝이 바로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은,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때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올바르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자들과 아직도 마지막 교회와 지파들의 개념을 완전하게 납득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까지 읽은 이 기록이 문제가 될 것이고, 나머지 이 기록에서 내가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것이, 지상 교회의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독교인의 직무이므로, 내가 그대를 위하여 피리를 불면 (마태복음 11:17) 많은 사람들이 춤추기를 기도한다.

지금 우리가 요한의 침례가 무엇인지 알았으므로, "신부에게 가입"함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성경말씀에서 세 종류의 침례를 가르친다. 그것의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 합류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성화하는 생애의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이전에 (스트롱스 문헌 1a에서 정의를 내려서) 말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고" (마가복음 1:8) 한 것이며, 또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 3:16) 여기에서 야쉬와께서 그 분 자신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소재는,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고" (사도행전 1:5) 하신 것이다.

물의 침례가 있고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요한의 침례"라고 단언하였다) 또 성령의 침례가 있다. 첫째는 죄들을 사함 받고, 또 야쉬와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생애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야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고" (사도행전 1:8) 하셨다. 성령의 침례는 그대를 오직 그리스도 교리의 증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증인으로 만든다. 이는 그대가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참된 일꾼이 되고, 그분의 참된 신부의 회원이 된 것이다. 우리가 요한의 침례를 안다, 그러나 내가 이전 기록에서 지적한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완전히 "개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가복음 22:32, 사도행전 2:1)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재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없다, 참으로 베드로의 경우에 재침례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그 때, 이미 그가 유일하고 완전한 조직체의 멤버였기 때문이다. 이미 참된 교회의 멤버가 된 자들을 위한 재침례는 또 다른 주제가 된다.

그런데도, 지금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어떤 훌륭한 선생들이 있다 (사도행전 18:25),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독교 교리가 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성경구절에서 이것을 옹호하여 언급한 문단과 다른 것들을 확인할 것이다. 그밖에 성령의 침례가 행하는 것들은 영적인 선물들을 허락한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발설하게 한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4) "그때 그의 아버지 사카라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음이라.'" (누가복음 1:67, 68)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경우, 그때, 그가 그 선물을 사용할 권세를 갖게 된 것은, 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어 그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8-11) 예언함과, 다른 언어들을 말함과, 믿음으로 기적을 행함과 병을 고치는 것... 이러한 모든 선물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때, 또는 후에 드러난다.

어떤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때, 그가 이러한 독특한 선물들 중에 하나를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 그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그것을 반박할 만한 것은, 오순절과 마가복음 마지막 인용문에서 분명히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 "방언들"을 언급한 것이었고, 듣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말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방언들을 말할 수 있음직한 오직 한 장소를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였다, 이는 그 교회가 세속적인 정신들을 소유한 문제 교회였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기록에서 방언 문제를 대규모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개하여 드러내지 않을 것을 완전히 이해하였다. 이는 대부분, 흔히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은밀하게 영원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다: "...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22,23) 이것이 이전에 내가 언급한 성령에 선물들의 목록이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능성을 말한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중에 언급된 목록이므로,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선물들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하튼,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날 것이다.

물 속에서 침례를 받기 전이나 후에, 즉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눈물이 그렇그렇하게 죄를 자백한 후,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났다. 이전에 이방인 코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났다. 그들에게서 이 영적인 선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사도행전 10:47,48) 여기에서 이상적인 것은 그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났을 때, 침례를 받은 것이다. 아무튼,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요엘 2:23절과 야고보서 5:7절에 "늦은 비"를 기다린다.

야쉬와의 참된 침례 안에서, 두 침례들이 (물과 성령의 침례가) 합류한다. 사도들이 물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방인들 위에 성령이 먼저 내렸으나 침례 받을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므로, 아직까지는 물 속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우에, 침례 하나가 지연되는 표면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물속 침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밖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합류한다.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3:21,22) 야쉬와께서 침례받을 때, 영적인 침례의 상징을 받으신 것은 성령의 특징을 완전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죄들을 사함 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고, 이미 말한 대로 그분께서 침례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성령을 소유하신 것도 아니다 (그분이 태 안에서 성령을 품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뚜렷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물 속에 잠기셨다, 이는 그분이 그밖에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행하신 것과 같다.

물론, 이 개념이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므로 (에베소서 4:5), 만일 처음으로 믿는 자들이 야쉬와 안에서 충분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생애에서 영이 역사하면, 즉시 (성령과 물에 잠기는) 두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19:4절을 인용하여 요한의 침례를 고려하면, "오실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다. 지금은 참으로 야쉬와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38)

내가 이렇게 물과 성령의 침례를 전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말한 것은, 구속된 총계 안에 있는 참된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5) 이와 같이, 물에 침례는 회개의 침례이며 (바꿔 말하면, 승리한) 것이다. 성령의 침례는 그대를 그리스도에 참된 증인으로 만든다 (즉, 신부의 회원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또한 같은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신부에게 가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지금 우리가 또 하나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신부가 무엇인가? 더할 나위 없이, 신부는 분명히 야쉬와의 교회다, (마태복음 9:15, 계시록 21:2,9,10) 그렇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스트롱스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매우 길게 내렸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모든 정의들을 내린 다양한 의미에 따르면, 주된 자질 두 가지가 있다: 1) 사람들이 (건물이나 교파나 조직이 아니고) "부르심 받고 나온" 자들이다. 2) 이러한 사람들이 "야"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다.

더할 나위 없이, 이 세상이 확실히 건물과 교파와 조직으로 쇠퇴하였다! 이전에는 결코 아주 많은 분리가 없었고, 인간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로부터 자신의 관습들과 의견들을 따르지 않았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이 다양한 종류의 분파들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한다. 내가 진정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교파를 개인의 개성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은, 참된 야쉬와의 믿음 안에서 본래 갖추어진 대로 하나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이 세상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지 기이하게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없다! 비록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려할지라도, 그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요즈음은, 어떤 기독교 형태든지, 먼저 사람을 "선택하여 받아들이게 하므로" 개심하는 것 같다. 이는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다양성이 민주주의에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야"의 나라는 유일한 왕국이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 분 왕이시고, 또 그 분께서는 한 율법 책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세속적인 정신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기를, "우리가 참으로 이 여러 가지 종파에 다양성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목적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무교파 문들을 청중들에게 열어놓고, 모든 종교적인 배경들로부터 믿는 자들의 잡동사니를 끌어모은다. 어떤 자들은 가장 가증한 오류를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오류들의 체계 속에서는 결코 빛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청중들을 잃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또 다시 야쉬와께서 지도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도둑질하는 자들을 그 분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내던질 것이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도 신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표준을 지속하지 않고, 무력한 양들을 지옥 구덩이로 인도하면, 메시아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3:14)

우리가 사람들의 자만심과 어리석은 가르침 대신에, 야쉬와의 가르침들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 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직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썩어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들이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3:24-30)

윗 문단에 언급에서, 이전에 좋은 씨를 밭 전역에 뿌린 것이 분명하다. 참으로, 좋은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으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고 또 분명히 소금은 보존하기 위하여 뿌려진 것이다. 아무튼, 마지막 날에, 모아들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교파 안에 충실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모든 무교파 모임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것들을 보고 한탄하는 자들이 있다 (또는 그들이 아직도 못 본 것들을 알면, 더욱더 한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밖에 아무데도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야의 충실한 자녀들이 모든 국가와, 나라와, 대륙에 거주한다. 그들 모두가 그들의 언어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탄하면서 기다린다.

두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 하나는 내가 이미 언급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써, 신실하고 참된 기독교인들의 총체이고, 이전에 가졌던 종교와 영적인 경험을 혐오하고, 야쉬와의 은혜와 자비와 영원한 생명을 정직하게 탐구하는 자들이다. 아무튼, 지금,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가 된 "야쉬와의 교회"가 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 완성이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21) 독자들이 이 요점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야쉬와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이유는, 그 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야쉬와를 믿는가? **No**. 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교파들이 말하기를, "**Yes**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이다."고 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면, 야쉬와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 분을 믿었을 것이다. **No**, 우리가 교회의 회원권으로나 영으로도 하나가 되지 않았다, 만일 하나가 되었으면, 세상이 그 분을 믿었을 것이고, 이미 그 분께서 오셨을 것이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이지만, 여전히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잘못이다.

영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기 위하여 열망할 것이다. 매주마다 그들의 영혼들에게 먹여준 오류들로 말미암아 발효되지 않을까 하고 그들이 "섞인 무리들"로부터 **나오기**를 갈망할 것이다. 어떤 자들은, 비록 죄를 극복하는 승리와 안식일에 안식하는 이 기별을 알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생애에서 실제적으로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버둥친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신부의 회원이 되지 않았고, 야쉬와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양심적으로 정결한 여자를 지지하고, 그들의 잘못된 조직들을 포기하고자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Yes**, 이 세상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가 흩어져 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또 어떤 자들이 소유한 기독교인에 경험들을 결코 경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이 모아 들이는 때이다. 알곡이 **한** 창고에 모아 들여질 때이고, 또 독보리들은 모두 **한** 불가마에 모아 들여질 때이다. 지금까지 그대가 그들의 신학 이론을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 교회의 멤버인가? 그대가 "어떤 교회도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빠진 피해자였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안심하라, 그러나 동시에, "실로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사도행전 17:30)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인가?" 라고 그대가 분노하여 질문할지 모른다. "비록 나의 교회가 가르쳤거나 가르치지 않는 오류들을 내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또 이해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재침례에 대한 성경말씀의 표준을 보기로 한다.

바울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백성들을 언급하여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열망하였던 것같이 우리도 악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1-3,6)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거주하였는가? "야" 자신이 그들을 그곳에 내려가도록 하였다. "일로힘께서 밤의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로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 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창세기 46:2,3)

"야" 자신이, 당분간 그 분의 백성들을 이집트에 내려가도록 한 것은 세상 상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잠시동안 번영하였지만, 그들이 최후로 정착할 곳이 아니었다! 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나라를 소유하셨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창세기 46:4)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이 기독교인들의 이전 경험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는다. 사실상, 지금 마지막 모임에서 믿는 자들이 "이국 땅"에서 배운 것을 **아무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나 그녀가 부르심 받았을 때, 참된 땅으로 탈출할 것이다. 바울의 기록에서, 부르심 받고 나온 자들이 모세에게 "침례"를 받은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발견하였을 때, 이전에 그들이 오해하여 **야쉬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무지함을 이해하였으면 (만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들의 잘못들을 (만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포기할 것이다.

우리가 또한, 신약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예들을 찾아본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녕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야쉬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예언하였다." (사도행전 19:1-6)

**윗 문단이 장황한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편 기사이다.** 여기에 당면한 문제에 관련된 핵심이 있다: 이 믿는 자들이 이미 침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야쉬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 당시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역시 그들이 이미 죄를 극복하고 승리함을 공언하는 자들이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배운 것이 아주 결합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록 그들이 메시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죄를 극복하고 승리한다고 공언할지라도, 그들이 대중 앞에서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여전히** 재침례를 받아야 했던 것은, 이 새로운 빛에 따라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재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 때,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전적으로 표적을 벗어났거나, 또는 우리가 참된 신부의 회원이 아니면, 당연히, 재침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도, 이전에 가진 경험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언급한 이론이 신학적인 오류가 없다. 그들이 단지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였고, 또 그들이 그것을 배웠을 때, 그들 자신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재현신 하기 위하여 서둘렀다. 진실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조차도 충분하지 않다 - 사람이 야쉬와의 이름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 나머지 알곡을 모으기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오직 그때 신부가 처음부터 유지한 이름을 그대가 참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 **SDA**=>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조직체의 회원권을 고려하여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로마서 7:2) 오직 죽어야 (혹은 이혼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참으로 결혼 관계가 해소된다. 타락한 세속적인 교회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의 회원권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여전히 하늘 법에 의하여 그 교회들에게 매여 있다. 그대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이 참되다고 확신하였을지라도 전과 마찬가지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는가? 그대가 안식일의 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혼과 마음에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가 아직도 가짜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대가 죽어야 "합법적"으로 해방될 수 있고 야쉬와에게 재혼할 수 있다. 그대가 오직 침례로 "물 무덤에 매장된" 후에, 어린 양의 신부의 회원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애를 살 수 있음은, 생명의 어린 양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5:13) 그대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았는가? 최초부터 "신부"가 남편의 이름을 취하는 것을 기억하라! 비록 그대가 이미 기독교인의 "사업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또 비록 그대가 이미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여전히 "**영과 신부가, 오라.**"고 말한다. (계시록 22:17)

지금 한가지 질문이 남아 있다: 무엇이 야쉬와의 참된 교회인가? 그대가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확실히 그 신부에 회원인지 알 수 있는가? 어떤 자가 말하기를,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오직 나의 마음 속 자체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면으로도, 내가 실제로 철저하게 안식하는 경험을 내 주위에 있는 자들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증언은 오직 인터넷 너머로 그와 같이 적절하게 고백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쉽사리 "와서 보라."고 (계시록 6:1,3,5,7) 말할 수도 없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적합한 말씀의 증거를 신뢰하여야 할 것이다 - 왜냐하면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와 교훈을 위하여 성경에 집착하면 절대로 손해가 없을 것이다.

### 참된 교회가 복음을 가르칠 것이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 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14:6,7) 만일 독자가 내가 기록한 "상속권을 주장한다"와 "승리"에 대한 주제를 아직도 읽지 않았으면, 지금 그대가 읽고 있는 이 기별이 추구할 수 있는 참된 코스에 속하는 적절한 움직임인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께서 창조주시고, 또 창조주를 경배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여자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야쉬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1:21)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15) "야쉬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분께로부터 태어나신 이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1,2)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18)

독자가 본문에서 모든 구절들에 배경을 읽으면, 이것이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 응답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문맥상 전후에 관계된 근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은혜 받은 백성들이 있고, 이를 기인하여 그들이 "야"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고, 또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지킬 것이다. 더욱이, 그들이 기쁨에 넘치고, 평화롭고, 행복한 백성들이 될 것이며,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 기록하였으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기쁘게 행한다. 이 지상에서 다른 어떤 교회도 이와 같은 능력으로 완전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다른 어떤 교회도 야쉬와의 구원을 희박하게 하면서 결백할 수 없다. 다른 어떤 교회도 그분의 계명들을 글자 그대로 법문으로나 영으로 다 지키고 "그들이 그분을 안다고 해야됨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5:19)

"야"의 백성들이 그들의 머리들을 쳐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옳은 날을 지키는 참된 교회이며 완전한 교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너희들은 아주 나쁘다!"고 하면, 이것이 오만이며 자만이 아닌가? 우리 중에 그러한 죄의 암시조차도 발견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오히려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야"께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열왕기상 18:21) 사람의 두려움이 불타는 도시 안에 머물게 할 것이다. 사람의 자존심이 불타는 도시 안에 머물게 할 것이다. 밖에서 예언자가 울면서 그대들을 부른다. 우리가 이 기별들 때문에 돌 던짐을 당할 것인가? 물론 돌 던짐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35)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경고에 음성을 억제할 수 있는가? 지금도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구원이 그 도시 밖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고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신부에게 가입하고, "야"의 모든 자녀들이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진하면서 활동하고 승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의도이며, 사도행전 2:43,36절에 개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한 것이다.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교리를 계속하였다." 오직 순전한 마음이 "야"의 완전한 교리를 이해하고, 영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그분의 지상 사업들을 행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을 구원하는 직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3)

교파주의 "여자"가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을 타고 (계시록 17:3) 파멸을 향하여 가고 있다. 오직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위에서 설명한 야쉬와의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또 이 교회가 유일하게 이 짐승의 표를 적극적으로 항거함은: 죄 안에서 구원받는 것과, 가짜 안식일과 정신적인 불만족과 같은 것, 등등이다. 세속적인 센스 안에서 짐승들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야" 자신이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가 짐승과 함께 늙거나, 짐승과 함께 드러눕기 위하여 가까이 접근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레위기 20:16),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진리를 이해한 것이다. 만일 어떤 여자가 (교회) 짐승과 (정부의 권력이나, 사람들의 지도자에 의하거나, 이교도의 오류들과) 함께 친교 하거나, 혹은 그러한 자들과 사랑장난이라도 하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불뿔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 19:20)

참된 교회는 그러한 오류들을 만들어 내거나 옹호하지도 않고 항거할 것이다! 그녀는 순결한 여자다, 그리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오직 순결한 여자에게 어린 양 자신이 결혼할 것이다. 오류를 지닌 짐승이 지옥으로 던져질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으나 조금도 상치를 입지 않은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8:5) 누구든지 어떤 교파에 속하거나 혹은 "섞인 무리"에 회원이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등록상표로 인하여 가짜 날을 경배하고, 성화된 생애의 기별을 부드럽고 적당히 처리하는 그 짐승을, 그들이 불 속에 떨어뜨리게 하라. 최후에 창조물이 안식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해야 할 큰 일을 위하여, 유일하게 남아 있는 "프로테스탄트"에 가입하여 세상이 갱생한 신부를 알게 하라.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더라." (누가복음 7:29,30)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의 죄들을 씻으라.'" (사도행전 22:14-16)

David.



## 예언의 신 인용문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명을 진전시켜야 하였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력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하였다. 그들의 신앙은 은혜와 능력의 근원되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였고, 그리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요, 그들을 구별하는 표요, 그들의 연합의 유대요, 그들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그들의 성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글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AA 28.2)**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분에게 머무르자 요한은 그의 두 손을 펴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1:29-34. (DA 137.1)**

우리가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침례를 받기 위하여 지금 자신들을 고려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시험에 가까울 만큼 적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앙을 고백하는 개심한 자들이 단지 제 칠일 안식일 재림교회 이름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주님의 편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 증거가 나타난 바로 그때, 그들을 수락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에 전통들과 풍습들과 감정들을 따르는 것이 나타나면, 그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처신하고 있는 행실을 변경해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그들을 교회 회원들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되고 충실한 청지기로 구성되기를 바라신다. **(5MR 329.1)**

이 집단이 변함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증인으로 지속하지 않으면, 안식하지 못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참된 상태를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천사들이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그들이 마땅히 성경 연구를 해야 할 만큼 탐구하지 않았으므로 부족함이 나타났고, 그들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읽으므로 그들의 마음들이 다른 것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성경이 마지막 날에 사는 우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령의 책이므로, 우리가 성경을 신중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우리의 생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할 것을 내가 보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식하지 못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더욱 성경을 사랑하여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어야 할 것이다. -- **Ms 5, 1851 ("Opposition to the Sabbath," May 18, 1851)**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숙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중대한 문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성경 연구는 가장 가치 있는 정신적인 노력이며 성화된 생애를 할 수 있는 최상에 능력이 된다. 교회에게 새로운 빛이 제시되었을 때, 그 새로운 빛으로부터 그대 자신들을 격리시키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대의 편견 때문에 사자의 기별을 반대하고 듣기를 거절함,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듣지 않았고 알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그대의 지혜가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 자들의 진리를 경멸하여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으며 정신 착란 자들이다. 만일 우리 청년들이 그 분을 위하여 일꾼들이 되고자 그들 자신들을 교육하기를 추구한다면, 주님의 길을 배워야 할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진리가 드러났으나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조물주께서는 더 이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비추실 빛이 없다. 그들에게 모든 진리가 드러났을 때, 만일 그들 자신들의 소신을 견고히 지키면, 그들이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을 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부한 광산에서 탐구하는 그들의 주의력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사람들로 발견될 것이다. **(CSW 32.1)**

\*\*\*\*\*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려,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따라 이적을 행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는 광야에서 사단의 꾀임에 응답하시고자 이적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복음이 그 원래의 신령한 표적을 갖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게 적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역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하는 때에 이적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성취되는 것이다. (에스겔 36:26)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는 한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나 또는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 앞에 내놓으신 증거이다. (DA 407.1)

### 그들이 추정한 새로운 빛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것인지 연구하고 확인하여서 다른 자들의 정당함을 존중하라 (영문) --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어떤 형제가 성경에 관해 새로운 빛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형제는 자기의 견해를 솔직히 발표할 것이며 또 목사들은 그가 제시한 문제가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치우침 없이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다." (디모데후서 2:24,25). -- GW 303. [PaM 30.2]